

한국학의 연구동향 분석 및 함의

행정문화를 중심으로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Trends in Korean Studies
: Focusing on Administrative Culture

곽병훈*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학의 맥락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한국문화의 중요 구성 요소의 하나인 행정문화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기존 연구 결과들에 기초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행정문화에 대한 연구관심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연구범위와 연구주제로 인해 행정문화의 많은 측면들이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이와 같은 흐름의 이면에 자리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 행정문화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범위의 확대를 전제로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의 행정문화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비교 관점에서 행정문화의 형성, 발전 및 변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요지다.

핵심어 한국학, 한국문화, 하위문화, 행정문화

- 차례**
1. 서론
 2. 행정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
 3. 행정문화의 연구동향 분석
 4. 연구동향 분석의 함의
 5. 결론

가치의 집합체라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20세기가 경제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불릴 만큼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대적 환경의 산물'¹로 이해될 만큼 한국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관련 연구가 매우 일천한 '행정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학의 핵심 주제인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인문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던 탓에 현재 한국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²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문화란 일반적으로 일반문화의 하위문화로서 행정조직의 행태뿐만 아니라 행정체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느 국가나 그 나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행정문화(administrative culture)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학의 맥락에서 행정문화의 연구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과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축적된 관행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혁신홍보팀장

1 박광국·채경진, 「문화행정 60년의 연구동향 분석」, 『행정논총』 46(2),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2 김종순, 「문화학으로서의 한국학: 특히 동아시아 한국학을 위하여」, 『한국학논집』 3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라의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 문화는 정치, 행정 등과 같은 사회체제의 구성원들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 구성요소들에 의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학의 맥락에서 기존에 등한시되었던 행정문화에 관한 연구동향을 연구영역별, 연구내용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문화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전통시대 행정문화 등을 주요 연구범주로 하고 있는 행정학 분야의 대표 전문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행정학의 연구흐름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기초해서 추적했다. 학술지는 해당 학문분야 연구의 시대적 변천과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³ 행정문화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전통시대 행정문화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이 실렸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행정사학지』의 연구논문들도 분석에 포함시켜 연구의 설득력을 높였다. 해당 학술지는 한국행정사 연구의 유일한 전문 등재학술지로 행정사의 연구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⁴

이들 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을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본 연구는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학의 정체성 확립 및 향후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2. 행정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

2.1. 행정문화의 특수성

한국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연구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왔지만⁵ 인문학을 넘어 사회과학의 연구분야를 한국학의 범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연구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현실에서 ‘문화’라는 개념으로 한국학의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적실성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⁶ “문화학으로서의 한국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즉 하위문화들(subcultures)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⁷ 이 하위문화의 하나가 바로 행정문화다.

행정문화는 거시적인 한국문화를 구성하는 하위문화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행정문화는 “행정인들(administrators)의 문화, 구체적으로 행정환경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의 문화”⁸ 혹은 “행정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내지는 행동양식의 총체”⁹로 정의된다.¹⁰ 이에 반해 후자의 시각은 “행정관료들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와 일반국민의 행정에 대한 가치체계의 총합”¹¹으로 행정문화를 이해한다. “행정에 영향을 주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및 제도 등과 일반국민들의 가치관”¹²이 곧 행정문화라는 것이다.

5 송민선,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49(4), 한국문화정보학회, 2015.

6 문옥표, 「인류학, 현대문화분석, 한국학」, 『한국의 사회와 문화』 23, 1995.

7 김종순, 앞의 글, 216~217쪽 참조.

8 Sharma, R. D., “Conceptual Foundations of Administrative Culture: an Attempt at Analysis of some Variable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2(1), 2002, p.65.

9 오석홍,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2008, 88쪽; 이강웅, 「우리 나라 정치문화와 행정문화의 특성 전개와 영향 범위」, 『지방과 행정연구』 13(1),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2001, 41쪽.

10 행정문화를 정부관료제라는 특정 집단에 한정된 문화로 더 좁게 보기도 한다. 조무성, 「한국행정인의 진단과 개혁: 행정문화의 시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7.

11 백완기, 『韓國의 行政文化』,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208쪽.

3 김선문, 「한국 행정학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인문사회』 6(1),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정우열, 「『한국행정사학지』 기고논문(2009-2018) 분석: 연구방법과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46, 한국행정사학회, 2019.

4 최호택·정석환, 「한국행정사연구의 차원과 타당성: 한국행정사학지의 연구주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8, 한국행정사학회, 2011; 정우영, 앞의 글.

이처럼 미시적 관점에서는 행정인 또는 관료들만이 행정문화의 주체가 되며,¹³ 행정문화는 그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 거시적 관점에서 행정문화에는 행정 관료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일반문화가 포함된다.¹⁴ 따라서 넓은 의미의 행정문화 개념은 행정문화에 대한 일반문화의 영향을 강조한다. 행정문화와 관련한 분석은 전체론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행정문화는 단순히 행정 관료제에 투영된 일반문화의 단면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일반문화와의 상호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¹⁵ 행정문화는 이대희¹⁶도 언급하듯이 그 환경으로서의 일반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문화의 미시적 관점 역시 일반문화와 행정문화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⁷ 문제는 일반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화현상으로서의 행정문화가 한국의 일반문화로 대변되는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2. 행정문화의 역사성

한 사회에는 그 사회의 역사적 산물로서 다른 사회와 구분되는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는데,¹⁸ 그 중 하나가 행정문화다. 행정체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시켜 온 것이 행정문화다.¹⁹ 이 점에서 윤은기²⁰는 행정문화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전승(inheritance)을 들고

있다. 행정문화는 전통문화에 영향을 받고, 새로운 행정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다.²¹ 행정문화는 과거의 경험과 ‘전통의 역사적 산물’²²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행정문화의 역사성에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단절, 역사의식 혹은 역사인식의 결여가 행정문화 연구를 특징짓고 있다. 한국 행정은 그 환경으로서 전통과의 “지적 대화를 단절”했다는, 행정학이 어느 학문분야보다 “역사적 단절의 중심에 서 있다.”는 지적²³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형성해 온 행정문화의 역사적 부분들이 연구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말이다. 행정문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행정문화에 내재해 있는 맥락적, 역사적 특징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²⁴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유교문화가 우리나라의 행정문화를 어떻게 특징지었는지,”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권위주의 문화의 토양 위에서 구축된 목민(牧民)과 같은 한국 행정문화의 전통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기독교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토대 위에서 구축된 서구의 행정문화와 혼재하면서 이러한 전통적 특성이 어떻게 변질되고 새롭게 형성되었는가를 검증하는 문화 변용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문화에 대한 연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⁵

12 이동수, 「한국의 행정문화와 리더십」, 『한국학논집』 4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45쪽.

13 박천오, 「韓國行政文化研究의 方向과 課題」, 『한국행정학회』 26(1), 한국행정학회, 1992.

14 윤은기, 「가치적인 행정문화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6(4),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15 박천오, 앞의 글; 윤은기, 「행정문화변동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행정논총』 43(3),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5.

16 이대희, 「儒敎式 行政文化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한국행정학회』 25(2), 한국행정학회, 1991.

17 윤은기, 앞의 글.

18 신원형, 「한국 행정문화 연구에 관한 비판적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17(3),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19 김규정, 『行政學原論』, 서울: 법문사, 2002.

20 윤은기, 앞의 글.

21 위의 글, 272쪽.

22 Dwivedi, O. P. & J. L. Gow, *From Bureaucracy to Public Management: The Administrative Culture of the Government of Canad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23 박홍식, 「한국행정학의 토착화의 실체와 의미」, 『kapa@포럼』 111, 한국행정학회, 2005; 김흥회, 「한국 행정(학) 정체성 위기의 큰 질문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서울행정학회, 2011.

24 윤건수,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 자리문화」, 『한국행정학회』 49(4), 한국행정학회, 2015, 1쪽.

25 김호섭·박천오, 「한국의 행정문화는 단점만 있는가?」,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8쪽; 박영기, 「한국행정인과 행정문화의 확인 작업」, 『한국행정학회』 36(3), 한국행정학회, 2002, 270쪽; 이동수, 앞의 글, 146쪽.

3. 행정문화의 연구동향 분석

3.1. 연구영역별 분석

우리나라에 행정학이 도입된 195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행정학은 ‘연구대상의 다양성’으로 특징되는²⁶ 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동시에 행정학의 연구동향 분석 또한 주요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먼저 1967년 창간호부터 1995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5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대별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²⁷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행정문화를 포함하는 행정이론 분야의 논문이 분석대상 논문 541편 중 111편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연구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9편, 11편, 11편, 17편, 25편, 38편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권경득²⁹의 지적과 같이 분석대상 기간 사이에 행정학의 연구대상이 행정이론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행정이론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철학 및 행정윤리(34편, 30.6%), 비교·발전행정(21편, 18.9%) 다음으로 행정문화와 관련된 연구 비중(11.7%)이 높았지만 대략 30년(1967~1995년)에 달하는 장기적 시간을 고려할 때 541편의 논문 가운데 행정문화에 관한 논문은 13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에 띄는 것은 이런 현실과는 달리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 실시로 연구의 주된 관심영역이 지방·도시행정 분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표 2> 참조).

이후의 분석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앞서와 같

<표 1> 행정학의 연구영역에 따른 시대별 연구경향 분포²⁸

(단위: 편, %)

분류/연도	1967-1970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계
행정이론	9(27.3)	11(27.5)	11(22.9)	17(29.8)	25(27.8)	38(13.9)	111(20.5)
행정학방법론		2(5.0)	3(6.3)	1(1.8)	4(4.4)	3(1.1)	13(2.4)
조직론	1(3.0)	4(10.0)	8(16.7)	4(7.0)	7(7.8)	43(15.8)	67(12.4)
인사행정		5(12.5)	6(12.5)	5(8.8)	3(3.3)	9(3.3)	28(5.2)
재무행정	1(3.0)	1(2.5)	3(6.3)	11(19.3)	5(5.6)	29(10.6)	50(9.2)
정책및기획	5(15.2)	6(15.0)	6(12.5)	9(15.8)	13(14.4)	34(12.5)	73(13.5)
행정관리	5(15.2)		1(2.1)		3(3.3)	12(4.4)	21(3.9)
지방·도시행정	10(30.3)	7(17.5)		4(7.0)	11(12.2)	65(23.8)	97(17.9)
분야별 정책·행정	2(6.0)	4(10.0)	10(20.8)	6(10.5)	19(21.1)	40(14.7)	81(15.0)
계	33(100.0)	40(100.0)	48(100.0)	57(100.0)	90(100.0)	273(100.0)	541(100.0)

연도별로 보더라도 1967~1970년 27.3%, 1971~1975년 27.5%, 1976~1980년 22.9%, 1981~1985년 29.8%, 1986~1990년 27.8%, 1991~1995년 13.9%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편수로 계산하면 앞서 기

이 행정학의 연구분야 분류기준을 활용해 1995~2001년 간 『한국행정학보』에 수록된 455편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³⁰ 결과에 의하면 7년간 행정이론 분야 논문은 전체의 9.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³¹의 분석대

26 권경득,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한국행정학회, 1996.

27 위의 글.

28 위의 글, 143쪽.

29 위의 글.

30 주상현,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한국행정학회, 2002.

31 권경득, 앞의 글.

32 위의 글, 144쪽.

〈표 2〉 행정이론 분야의 연구경향³²

세부영역	빈도(편)	퍼센트(%)
행정철학및행정윤리	34	30.6
접근방법(패러다임)	8	7.2
행정사	7	6.3
행정문화	13	11.7
행정개혁	7	6.3
비교발전행정	21	18.9
행정통제	12	10.8
정치경제	6	5.4
기타	3	2.7
계	111	100.0

상 기간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행정이론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편수로 보면 1995년 8편, 1996년 8편, 1997년 4편, 1998년 6편, 1999년 4편, 2000년 9편, 2001년 3편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방 및 도시행정 분야 연구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처럼 학자들의 연구대상도 변하는 시대적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행정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같은 저널에 실린 296편의 논문 주제어(핵심어) 빈도분석을 토대로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³⁷ 결과에서도 행정문화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그림 1〉 참조).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듯 ‘거버넌스’ 관련 주제가 행정학의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지방정부, 참여정부, 실용주의 같은 현대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³⁸ 최근까지도 이런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⁹

〈표 3〉 행정학 연구영역에 따른 연도별 연구경향³³

(단위: 편, %)

구분	행정이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및기획	행정관리	지방및도시행정	기타	계
1995	8(9.9)	7(9)	10(12.3)	6(8)	22(27.2)	0(0)	26(32.1)	2(2.5)	81(100)
1996	8(16)	8(16)	4(8)	5(10)	10(20)	1(2)	14(28)	0(0)	50(100)
1997	4(7.3)	8(14.5)	10(18.2)	5(9)	9(16.4)	3(5.4)	13(23.6)	3(5.5)	55(100)
1998	6(9.7)	8(12.9)	2(3.1)	8(12.9)	8(12.9)	3(4.8)	20(32.3)	7(11.3)	62(100)
1999	4(4.9)	3(3.7)	10(12.3)	4(4.9)	25(30.9)	3(3.7)	31(38.3)	1(1.2)	81(100)
2000	9(12)	7(9.3)	10(13.3)	4(5.3)	11(14.7)	3(4)	24(32)	7(9.3)	75(100)
2001	3(5.9)	14(27.5)	5(9.8)	2(3.9)	11(21.6)	2(3.9)	13(25.5)	1(1.9)	51(100)
계	42(9.2)	55(12)	51(11.2)	34(7.8)	96(21)	15(3.3)	141(31)	21(4.6)	455(100)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표 3〉에서와 같이 총 455편 가운데 행정이론 분야의 논문은 42편에 그쳤다. 더욱이 이전 연구³⁴ 결과와 동일하게 42편의 행정이론 분야 논문 중에 행정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⁵ 결론적으로 앞서 연구³⁶의 연장선상에서 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행정사학지』에 실린 총 205편의 논문을 『한국행정학보』의 연구경향에 비취 분석한 연구⁴⁰ 결과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연구 현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5편의 논문 중 행정사상 및 가치

33 주상현, 앞의 글, 43쪽.

34 위의 글.

35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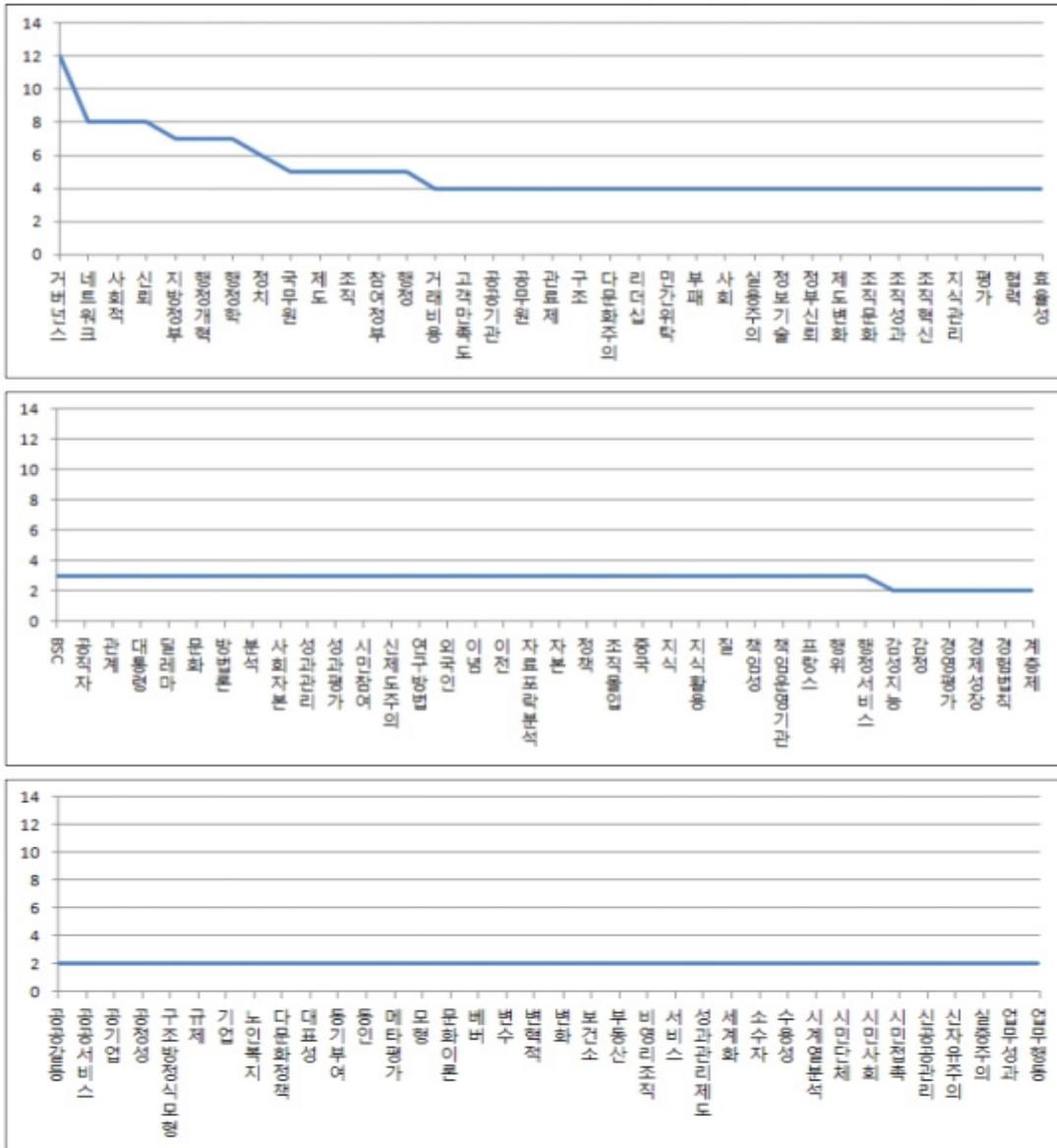
36 권경득, 앞의 글.

37 최영출·박수정,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한국행정학회, 2011.

38 위의 글.

39 권경득, 앞의 글 참조.

40 정우열, 앞의 글.



〈그림 1〉
한국행정학보 논문의
핵심어 빈도분석 결과,
2005년-2009년⁴¹

분야와 관련된 38편의 논문 가운데 행정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3편, 비율로는 7.9%에 머물렀다. 시대 또한 조선시대에 국한된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제도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⁴²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같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창간호(1992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사⁴³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문⁴⁴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지평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⁴⁵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표 4〉 행정사상 및 가치분야⁴⁶

(단위: 편, %)

대분류	중분류	빈도
행정이념및사상	행정이념	4(10.5)
	행정사상	25(65.8)
행정윤리및문화	행정윤리	6(15.8)
	행정문화	3(7.9)
합계		38(100.0)

41 최영출·박수정, 앞의 글, 130쪽.

42 위의 글, 175쪽.

43 “행정사(行政史)란 정부제도나 법규, 행정과 세부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이대희, 「행정학자들의 행정사 연구 경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서울행정학회, 2013, 391쪽.

44 김경수, 「한국행정사학회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행정사학지』 18, 한국행정사학회, 2006. 이 연구는 『한국행정사학지』 1호(1992년)부터 17호(2005년 12월 30일)까지 수록된 200편의 논문을 분석했다.

45 한승연, 「한국의 행정사 연구 분석: 1956~2016년까지 발간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9, 한국행정사학회, 2016; 정우열, 앞의 글.

46 위의 글, 190쪽.

3.2. 연구내용별 분석

앞서와 같이 19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문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교에 뿌리를 둔 비합리적인 전통 행정문화가 한국 행정 발전에 장애가 된다.”⁴⁷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구 행정제도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행정문화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⁴⁸

이를 반영하듯 『한국행정학보』의 초기 논문들은 조선 시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행정문화와 유교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전통 행정문화의 부정적, 전근대적 측면과 특성을 밝히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⁴⁹ 한국의 전통 행정문화는 전근대적이라는 사고가 짙게 깔려 있다. 가령 백완기⁵⁰는 의식주의가 행정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운데 의식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문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 요소들은 전통 행정문화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이들 논문의 전체적인 요지라 할 수 있다.

이후 비교 관점에서 행정문화에 대한 국가별 특성에 주목한 연구⁵¹를 제외하고 전통 행정문화와 관련한 이전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논문들이 특히 눈에 띈다. 한국의 전통 행정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혹은 이해 부족이 전통 행정문화의 부정적 속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들 논문은 보고 있다. 유교에서 유래한,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전통 행정문화 속에는 궁

정적 측면들도 있다는 것이다.⁵² 이대희⁵³는 기존 연구들의 유교식 행정문화에 대한 해석은 철저히 부정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유교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을 논하고 있다.

범위를 넓혀 유교뿐만 아니라 신화, 무교, 불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문화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통 행정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목격할 수 있다.⁵⁴ 이러한 시각은 비슷한 시기 『한국행정사학지』에 실린 논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⁵⁵ 유교문화가 조선 관료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것⁵⁶과 전통 행정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편향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다.⁵⁷

전통 행정문화 연구의 관점 및 접근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⁵⁸ 기존 연구들은 전통 행정문화를 문제 삼으면서도 거시적, 전체적 맥락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전통 행정문화의 속성들을 개념적,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안주해 있다는 것이다.⁵⁹ 물론 유교 사상의 정치경제학적 역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 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를 문제시하는 글⁶⁰도 균형 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앞서 논문들과 함께 한국 전통 행정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47 박천오, 「한국 행정문화: 연구의 한계와 과제」, 『정부학연구』 14(2),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8, 216쪽.

48 위의 글: 이동수, 앞의 글.

49 백완기, 「韓國行政의 近代化에 對한 文化心理學的 接近法」, 『한국행정학보』 9, 한국행정학회, 1975; 김해동, 「官僚行態와 家族主義」, 『한국행정학보』 12, 한국행정학회, 1978 참조.

50 백완기, 「韓國의 行政文化: 儀式主義를 中心으로」, 『한국행정학보』 12, 한국행정학회, 1978.

51 심익섭, 「유럽 諸國의 行政文化에 對한 比較考察」, 『한국행정학보』 22(2), 한국행정학회, 1988.

52 김만기, 「情報公開과 韓國의 行政文化」, 『한국행정학보』 24(2), 한국행정학회, 1990; 이대희, 앞의 글.

53 위의 글, 549~550쪽.

54 최병학, 「韓國行政文化의 宗教文化의 性格研究: 韓國의 神話, 巫教, 佛敎, 儒敎를 中心으로」, 『한국행정학보』 19(1), 한국행정학회, 1985 참조.

55 이강선, 「朝鮮朝 官僚制의 儒敎文化의 特性에 關한 研究」, 『한국행정사학지』 1, 한국행정사학회, 1992; 봉민근·유해운, 「儒敎思想이 韓國行政文化에 미친 順機能的 影響」, 『한국행정사학지』 4, 한국행정사학회, 1995 참조.

56 위의 글.

57 위의 글.

58 박천오, 앞의 글 참조.

59 위의 글.

60 한석태,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 문헌비평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3(4), 한국행정학회, 1999.

이밖에 하위문화 차원에서 행정문화 연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일반문화와 행정문화의 관계, 행정문화와 행정윤리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⁶¹, 정치·행정문화의 특성과 특질을 개인의 의식조사를 통해 추적한 글⁶², 전통 행정문화(가부장적 행정문화)가 행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한 논문⁶³, 그리고 관치행정문화의 형성과 고착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⁶⁴ 등 대체로 현실 중심의 경험적 논문들을 주로 접할 수 있다.

편수는 적지만 2000년대 이후에 『한국행정학보』에 수록된 논문들을 통해서도 행정문화와 관련한 연구 관심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호정⁶⁵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조직문화와 조직 효과성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으며,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해 9개 중앙행정부처 행정문화의 특성을 도출한 연구⁶⁶도 있다.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을 주제로 행정문화를 탐색한 논문⁶⁷은 특히 주목을 요한다. 행정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행정문화가 갖고 있는 맥락적, 역사적 특징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맥락적 이해’와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문화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⁶⁸ ‘현재와 과거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행정의 가치로서 유교사상을 재조명하고 있는 연구⁶⁹ 역시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동향을 분석대상 학술지의 출간 연도를 고려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종합해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행정문화의 연구동향

초기연구 (60년대 후반-80년대 후반)	후속연구 (90년대 초반-90년대 후반)	최근연구 (2000년 이후)
유교문화의 특성 비판	유교문화의 특성 재조명	행정문화의 성격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화의 부정적 요소 강조 • 행정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화의 재해석 • 행정문화의 긍정적 요소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화의 역사성 강조 • 행정문화의 맥락성 강조

4. 연구동향 분석의 함의

4.1. 행정문화 연구의 기본 전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문화의 연구흐름은 유교식 전통 행정문화에 대한 비판 → 유교식 전통 행정문화에 대한 재조명 → 역사적, 맥락적 관점에서 행정문화의 성격 규명으로 크게 이해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현대 행정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행정문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앞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행정문화와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이 조선시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현대 행정문화를 연구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연구의 균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연구의 용이성’에서 오는 문제라 할 수 있다.⁷⁰ 유교식 행정문화만 하더라도 이는 지난 우리 과거의 모든 역사와 지식을 총괄하는 통시적 실체라는 사실이다.⁷¹ 연장선상에서 한국 행정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이의 장·단점

61 이양수, 「韓國行政文化의 바람직한 變化方向」, 『한국행정학보』 24(1), 한국행정학회, 1990; 김호섭, 「행정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본 행정윤리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24(1), 한국행정학회, 1990.
 62 안병만·김인철, 「韓國 政治·行政文化의 構造分析: 階層關係와 人脈關係를 中心으로」, 『한국행정학보』 25(3), 한국행정학회, 1991.
 63 사공영호,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한국행정학보』 32(2), 한국행정학회, 1998.
 64 노화준, 「한국 행정문화의 진화에 대한 복잡성 과학적 해석: 관치경제,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4), 한국행정학회, 1998.
 65 김호정, 「행정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36(4), 한국행정학회, 2002.
 66 최성욱, 「한국행정조직의 문화적 프로필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39(2), 한국행정학회, 2005.
 67 윤건수, 앞의 글.
 68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 참조.
 69 류지성·조규영, 「유교 사상의 행정 가치 적용에 관한 연구: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덕(德)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지』 31, 한국행정사학회, 2012.

70 정우열, 앞의 글.

71 이대희, 앞의 글, 553쪽 참조.

을 둘러싼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아마도 행정문화의 속성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는 기존의 지배적인 시각⁷²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논의가 탈맥락적, 탈역사적 시각에서 유교문화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측면들을 밝히는 데만 지나치게 치중해 있어 한국 행정문화의 많은 측면들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다.

이러한 제한된 연구범위와 연구주제로 인해 행정문화 연구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전통적-근대적’ 혹은 ‘부정적-긍정적’과 같은 단일 차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행정문화 연구에 요구되는 이유다.⁷³ 아울러 행정문화에 대한 개념적 합의나 문화적 속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행정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탓에 그 결과가 단순한 선형적 추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⁴

요약하면,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 행정문화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연구범위와 연구주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상위문화인 한국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4.2. 행정문화 연구의 기본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행정문화의 성격과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행정문화의 개념화, 행정문화의 연원 분석, 행정문화의 발전 및 변화에 대한 진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행정문화를 비교

관점에서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교 연구는 행정문화에 대한 역사적, 맥락적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문화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교 연구가 특히 필요하다. 학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형태인 공동 연구 또한 이런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문화 연구의 이 같은 방향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과제가 행정문화의 개념 정립이다. 현재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관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문화의 기본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한국문화와 분리된 개별문화로서의 행정문화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그 하위문화로서 행정문화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념’은 연구주제의 범위와 틀, 그리고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 지식 공유를 가능케 하는 수단⁷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문화의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비교 관점에서 전통 행정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유교식 행정문화가 형성된 시대적 맥락을 고려치 않고 현재의 시각에서 유교식 행정문화를 논하는 것은 자칫 기본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행정문화는 그것이 형성되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교식 행정문화와 같은 전통 행정문화는 조선시대라는 특정 시·공간을 넘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가치와 전통들이 반영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연구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행정문화의 형성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72 이강웅, 앞의 글, 47쪽 참조.

73 이동수, 앞의 글; 한승연, 앞의 글.

74 김호섭·박천오, 앞의 글, 12쪽.

75 Buckley-Zistel et al., erike Mieth. (2014). “Transitional Justice theories: An introduction.” In Susanne Buckley-Zistel, Teresa Koloma Beck, Christian Braun & Friederike(eds.), *Transitional Justice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14.

이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행정문화의 연구범위를 고려시대, 나아가 고려시대 이전까지 확장해야 한다. 고려시대 이전 시기는 물론 고려시대 행정문화와 관련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다는 지적⁷⁶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를 전제로 행정문화의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문화인 일반문화의 행정문화에 대한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인 가치와 전통, 사회구조와 행정제도의 관계, 행정문화 형성에서의 행위자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한 한국 행정문화의 형성 과정에 대한 비교 역사 연구는 시공간에 걸친 행정문화 형성의 비교사적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이해는 행정문화의 발전 과정, 다시 말해 행정문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통시적 분석 혹은 접근이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문화는 고정된 형태라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문화적 패턴이기 때문이다.⁷⁷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행정문화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추가될 때 한국 행정문화에 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앞서 제안한 시대별 연구범위의 확대와 함께 시대별 행정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 연구를 통해 지금의 연구 공백을 채워야 한다. 현대 행정문화로 이어지는 고려시대 이전과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행정문화 연구가 매우 미진한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미군정기를 아우르는 행정문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행정문화는 전통 행정문화와 현대 행정문화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행정문화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정기 등의 행정문화에 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⁷⁸ 전통 행정문화의 변화가능성을 인정하는 연구조차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⁷⁹ 이런 역사적 단절이 한국 행정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행정문화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행정문화의 역사적 연속성에 더해 현대 행정문화에 대한 사실적 이해도 중요하다.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현대 행정문화는 피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유교 전통적 행정문화가 여전히 잔존해 있지만 “발전지향적 행정문화”, “민주지향적 행정문화”, “성과관리적 행정문화”로 특징되는⁸⁰ 문화적 변화,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런 변화와 다양성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행정문화의 변화추세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 비교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한국 행정문화에 접근하는 것은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다.⁸¹ 현대 행정문화가 전통 행정문화에서 어느 정도 이탈했는지,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⁸² 또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개방 환경 속에서 행정문화의 변화 과정을 조명하는 것은 한국 행정문화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78 한승연, 앞의 글, 259~260쪽 참조.

79 박천오, 앞의 글.

80 윤광재·황성수, 「한국행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행정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29, 45쪽.

81 박천오, 앞의 글, 221쪽 참조.

82 위의 글.

76 한승연, 앞의 글.

77 윤은기, 앞의 글; 한승연, 앞의 글.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학의 맥락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한국문화의 중요 구성 요소의 하나인 행정문화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기존 연구 결과들에 기초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행정문화에 대한 연구관심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연구범위와 연구주제로 인해 행정문화의 많은 측면들이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이와 같은 흐름의 이면에 자리해 있다.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 행정문화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행정문화의 성격과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범위의 확대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행정문화의 개념화, 행정문화의 연원 분석, 행정문화의 발전 및 변화에 대한 학술적 진단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문화와 분리된 개별문화로서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정의될 수 있는 하위문화로서 행정문화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비교 관점에서 전통 행정문화의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역사 연구가 진척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별 행정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 연구에 기반한 행정문화의 역사적 변천 및 진화 과정 등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문화의 역사적 연속성에 더해 현대 행정문화의 변화 및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행정문화의 관점에서 같은 유교문화권에 위치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문화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유교적 문화전통이 한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의 사회특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간 비교 연구가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문화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세계체제(world

system)의 일부로 자리한 만큼 세계와 연관해서 한국문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⁸³ 이것이 한국 행정문화, 넓게는 한국문화의 일반화를 도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83 김중순, 앞의 글.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권경득,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한국행정학회, 1996.
- _____, 「지방행정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5), 2016.
- 김경수, 「한국행정사학회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행정사학지』 18, 한국행정사학회, 2006.
- 김규정, 『行政學原論』, 서울: 법문사, 2002.
- 김만기, 「情報公開과 韓國의 行政文化」, 『한국행정학보』 24(2), 한국행정학회, 1990.
- 김선문, 「한국 행정학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인문사회』 6(1),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 김중순, 「문화학으로서의 한국학: 특히 동아시아 한국학을 위하여」, 『한국학논집』 38(3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김해동, 「官僚行態와 家族主義」, 『한국행정학보』 12, 한국행정학회, 1978.
- 김호섭, 「행정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본 행정윤리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24(1), 한국행정학회, 1990.
- 김호섭·박천오, 「한국의 행정문화는 단점만 있는가?」,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9.
- 김호정, 「행정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36(4), 한국행정학회, 2002.
- 김흥희, 「한국 행정(학) 정체성 위기의 큰 질문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서울행정학회, 2011.
- 노화준, 「한국 행정문화의 진화에 대한 복잡성 과학적 해석: 관치경제,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4), 한국행정학회, 1998.
- 류지성·조규영, 「유교사상의 행정가치 적용에 관한 연구: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덕(德)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1, 한국행정사학회, 2012.
- 문옥표, 「인류학, 현대문화분석, 한국학」, 『한국의 사회와 문화』 23, 1995.
- 박광국·채경진, 「문화행정 60년의 연구동향 분석」, 『행정논총』 46(2),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 박영기, 「한국행정인과 행정문화의 확인 작업」, 『한국행정학보』 36(3), 한국행정학회, 2002.
- 박천오, 「韓國行政文化研究의 方向과 課題」, 『한국행정학보』 26(1), 한국행정학회, 1992.
- _____, 「한국 행정문화: 연구의 한계와 과제」, 『정부학연구』 14(2),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8.
- 박흥시, 「한국행정학의 토착화의 실체와 의미」, 『kapa@포럼』 111, 한국행정학회, 2005.
- 백완기, 「韓國行政의 近代化에 對한 文化心理學的 接近法」, 『한국행정학보』 9, 한국행정학회, 1975.
- _____, 「韓國의 行政文化: 儀式主義를 中心으로」, 『한국행정학보』 12, 한국행정학회, 1978.
- _____, 『韓國의 行政文化』,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봉민근·유해운, 「儒敎思想이 韓國行政文化에 미친 順機能의 影響」, 『한국행정사학지』 4, 1995.
- 사공영호,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한국행정학보』 32(2), 한국행정학회, 1998.
- 송민선,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한국문헌정보학회, 2015.
- 신원형, 「한국 행정문화 연구에 관한 비판적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17(3),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 심익섭, 「유럽 諸國의 行政文化에 對한 比較考察」, 『한국행정학보』 22(2), 한국행정학회, 1988.
- 안병만·김인철, 「韓國 政治·行政文化의 構造分析: 階層關係와 人脈關係를 中心으로」, 『한국행정학보』 25(3), 한국행정학회, 1991.
- 오석홍,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2008.
- 윤광재·황성수, 「한국행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행정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 윤건수,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 자리문화」, 『한국행정학보』 49(4), 한국행정학회, 2015.
- 윤은기, 「행정문화변동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행정논총』 43(3),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5.
- _____, 「가치적인 행정문화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6(4),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 이강선, 「朝鮮朝 官僚制의 儒敎文化의 特性에 關한 研究」, 『한국행정사학지』 1, 한국행정사학회, 1992.
- 이강웅, 「우리 나라 정치문화와 행정문화의 특성 전개와 영향 범위」, 『지방과 행정연구』 13(1),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2001.
- 이대희, 「儒敎式 行政文化에 對한 새로운 해석」, 『한국행정학보』 25(2), 한국행정학회, 1991.
- _____, 「행정학자들의 행정사 연구 경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서울행정학회, 2013.
- 이동수, 「한국의 행정문화와 리더십」, 『한국학논집』 42(4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이양수, 「韓國行政文化의 바람직한 變化方向」, 『한국행정학보』 24(1), 한국행정학회, 1990.
- 정우열, 「『한국행정사학지』 기고논문(2009-2018) 분석: 연구방법과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46, 한국행정학회, 2019.
- 조무성, 「한국행정인의 진단과 개혁: 행정문화의 시각」,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7.
- 주상현, 「한국 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한국행정학회, 2002.
- 최병학, 「韓國行政文化의 宗教文化의 性格研究: 韓國의 神話, 巫敎, 佛敎, 儒敎를 中心으로」, 『한국행정학보』 19(1), 한국행정학회, 1985.
- 최성욱, 「한국행정조직의 문화적 프로필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39(2), 한국행정학회, 2005.
- 최영출·박수정,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한국행정학회, 2011.
- 최호택·정석환, 「한국행정사연구의 차원과 타당성: 한국행정사학지의 연구주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8, 한국행정사학회, 2011.
- 한석태,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 문헌비평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3(4), 한국행정학회, 1999.
- 한승연, 「한국의 행정사 연구 분석: 1956~2016년까지 발간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39, 한국행정사학회, 2016.
- Buckley-Zistel, Susanne, Teresa Koloma Beck, Christian Braun & Friederike Mieth, "Transitional Justice theories: An introduction", In Susanne Buckley-Zistel, Teresa Koloma Beck, Christian Braun & Friederike eds., *Transitional Justice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14.
- Dwivedi, O. P. & J. L. Gow, *From Bureaucracy to Public Management: The Administrative Culture of the Government of Canad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 Sharma, R. D., "Conceptual Foundations of Administrative Culture: an Attempt at Analysis of some Variable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2(1), 2002.

Abstract**Analysis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Trends in
Korean Studies**

Focusing on Administrative Culture

Kwak, Byung-Hun |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article examined research trends related to administrative culture,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Korean culture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context of Korean studies, based on existing research result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interest in research on administrative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ulture is still low. The reality that many aspects of administrative culture are alienated from research due to the limited scope of research and research topics lies behind this trend. In this context, in order to promote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ulture as a subculture of Korean cul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culture as a subculture of Korean culture on the premise of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as well as to conduct various studies on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cultur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eywords Korean Studies, Korean Culture, Subculture, Administrative Culture